

글이 지어진 열아홉 자리로 읽어 내는 고1 대의파악

고1 글읽기 시작

지은이 정성봉

퍼넌곳 제이앤유아카데미

고1 글읽기 시작

글이 지어진 열아홉 자리로 읽어 내는 고1 대의파악 · 본책

초판 1쇄 발행	[발행일]
지은이	정성봉
펴낸이	정성봉
펴낸곳	제이앤유아카데미
기획·편집	코드유니버스 · 한땀한땀
출판등록	356-2025-000052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836
전화	010-2782-0745
전자우편	code_of_english@naver.com

© 정성봉, 2026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제이앤유아카데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본문 지문은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 원문입니다.

목차

차례는 **유형이 아니라 자리**다. 부 여덟은 **글쓰기 원칙**이고, 그 아래 장 열아홉은 그 원칙이 영어 글에서 나타나는 **꼴**이다. 장마다 지문 일곱 편 — 예제 한 편 · 훈련 다섯 편 · 「한 걸음 더」 한 편이 들어간다.

1부 · 글은 하나만 말한다

1장	이름 붙이기	1
2장	날말 따옴표	11
3장	빗대기	19

2부 · 포괄이 오면 세부가 온다

4장	G→S 표지	28
----	--------	----

3부 · 세부가 쌓이면 접는다

5장	S→G 표지	36
----	--------	----

4부 · 세우면 아닌 것을 지운다

6장	대조 표지 있음	45
7장	대조 표지 없음	53

5부 · 문제가 나오면 해결이 온다

8장	문제가 나온다	61
----	---------	----

6부 · 인용·연구는 곧 주제다

9장	연구가 근거	69
10장	연구 낱말뿐	78
11장	따옴표뿐	85

7부 · 앞 문장을 한 낱말로 받는다

12장	한 낱말로 받기	93
-----	----------	----

8부 · 첫 문장은 화제만 준다

13장	추상 도입	101
14장	조건 도입	109
15장	일화 도입	116
16장	1인칭 경험	124
17장	물음 던지기	133
18장	가주어·강조	142
19장	명령 조언	150

여덟 절이 장마다 같은 차례로 돈다. 챕터 시작면 → 들어가기 → 핵심 개념 → 지문 들여다보기 → 읽기 루틴 → 주의 → 단계 훈련 → 챕터 요약. 어느 장을 펴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만나므로, 장을 건너뛰어 펴도 길을 잃지 않는다.

훈련한 편의 풀이는 별책에 있다. 별책의 장 번호는 본책과 같다 — 8장을 풀었으면 별책 8장을 편다.

머리말

문장은 읽힌다. 그런데 글이 끝나면 **무슨 말이었는지가 안 남는다**. 고1 교실에서 가장 흔한 자리가 여기다. 낱말도 알고 구조도 보이는데, 마지막 줄을 읽고 나면 손에 쥘 것이 없다.

글이 안 남는 것은 문장을 못 읽어서가 아니라 **어디를 봐야 하는지 정해 두지 않아서**다. 글은 아무 데서나 시작하지 않는다. 쓴 사람이 먼저 **이름을 붙이고, 포괄을 던지고 세부로 내려가고, 세워 놓고 아닌 것을 지우고, 문제를 내놓고 해결로 간다**. 그 방식이 영어 글에서는 늘 같은 꼴로 나타난다. 그 꼴을 알아보는 것이 이 책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책의 차례는 **유형이 아니라 자리**다. 「요지 문제 푸는 법」이 아니라 「이 자리에 무엇이 박혀 있나」로 갈라 놓았다. 부 여덟은 글쓰기 원칙이고, 그 아래 장 열아홉은 그 원칙이 영어로 드러나는 꼴이다. 한 장이 곧 **하나의 자리**이고, 그 자리를 알아보면 어느 유형으로 물어도 답이 같은 데서 나온다.

지문은 **고1 학력평가 기출 원문 그대로**다. 아포스트로피 하나, 대시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네가 시험장에서 만날 글이 이 지면에 있는 글과 같아야 훈련이 훈련이 된다.

이 책이 하지 않는 것 하나. 문장 구조를 다시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은 앞의 책이 한 일이고, 이 책은 문장을 읽을 수 있다고 보고 시작한다.

둘. 유형별 요령을 주지 않는다. 「빈칸은 마지막 문장을 보라」 같은 말은 이 책에 없다. 그 자리는 다음 책이 갖는다.

셋. 새 방법론을 만들지 않는다. 도구는 이미 있다. 이 책은 그 도구를 **다 꺼내 놓고 고르는 훈련**만 한다.

넷. 고1 대의파악이 이 책의 자리다. 고3 지문은 여기 없다.

한 장에 지문 일곱 편이 들어간다. 여섯 편은 대의파악이고, 마지막 **「한 걸음 더」** 한 편은 빈칸·순서·삽입·함의다. 유형을 섞은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가 깊은 물음에서도 그대로 온다**는 것을 보이는 자리다.

글이 안 남던 것이 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붙는다.

지은이

이 책을 쓰는 법

어느 장을 펴도 **같은 여덟 절이 같은 차례로** 돈다. 그래서 장을 건너뛰어 펴도 길을 잃지 않는다.

여덟 절

절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1 · 챕터 시작면	이 장이 맡은 자리와 담당 표지. 배우기 전과 배운 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본다
2 · 들어가기	지문 한 대목으로 던지는 짧은 물음 셋. 답을 몰라도 좋다 — 무엇을 볼지 눈을 맞추는 자리다
3 · 핵심 개념	왜 그 표현이 거기 있는가부터. 표 하나로 접는다
4 · 지문 들여다보기	예제 한 편. 지문 전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짚고, 틀리게 만든 선택지에 낙인을 붙인다
5 · 읽기 루틴	STEP 넷. 손이 하는 일만 적었다
6 · 주의	실제로 자주 하는 실수 둘
7 · 단계 훈련	A 짧은 확인 · B 본문 한 편 · C 「한 걸음 더」 한 편
8 · 챕터 요약	표 하나와 다음 장 예고

푸는 차례

- ① 3절까지 읽고 **4절을 먼저 스스로 풀어 본다**. 풀이가 바로 아래 있어도 눈으로 훑치지 않는다.
- ② 5절 루틴을 손으로 따라 하며 4절을 다시 읽는다.
- ③ 7절을 푼다. 채점은 **별책**에서 한다 — 장 번호가 본책과 같다.
- ④ 틀린 편은 **어느 자리를 못 봤는지**부터 적는다.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익히는 것이 이 책의 훈련이다.

읽는 데 걸리는 규칙 둘

직독직해의 빗금(/)은 **끊어읽기 표시**다. 영어 조각과 우리말 조각이 하나씩 맞물린다. 우리말이 어색하게 느껴지면 그것이 정상이다 — 영어 차례를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이고, 되돌아가 다시 조립하지 않기 위해서다.

오답에 붙는 낙인은 정해진 것만 쓴다. 「탄소재」는 지문에 아예 없는 이야기이고, 「초점 어긋남」은 지문에 있기는 한데 중심이 아닌 것이다. 둘을 가르는 잣대는 하나다 — **그 말이 지문에 있는가**.

1부를 열며 — 글은 하나만 말한다

글 한 편은 하나만 말한다.

당연해 보이지만, 지문을 읽다 보면 이 당연한 것이 잘 안 보인다. 문장이 여섯 개면 여섯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어려운 낱말이 나오면 그 낱말이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다 읽고 나면 무슨 말이었는지 안 남는다.

글쓴이는 그러지 않았다. 하나를 정하고, 나머지 문장을 전부 그 하나에 붙였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다 — **그 하나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찾는 것.**

1부는 그 「세우는 방식」 셋을 배운다.

챕터	어떻게 세우나
CH01 이름 붙이기	한 낱말에 이름을 준다 — is called · refers to
CH02 낱말 따옴표	낱말 하나에 따옴표를 씌워 도드라지게 한다
CH03 빗대기	다른 것에 빗대어 말한다 — 나무 · 요요 · 나무늘보

셋 다 하는 일은 같다. **방식만 다르다.**

챕터 시작면

1부 · CHAPTER 01 · 담당 표지 **is called · refers to · referred to as · known as**

이름이 붙은 그 낱말이, 글의 주인이다

Before — 영어 지문을 읽으면 모르는 낱말만 눈에 들어왔다. 어려운 말이 나오면 거기서 멈췄고, 다 읽고 나면 무슨 이야기였는지 남지 않았다.

After — 글쓴이가 이름을 붙이는 자리를 안다. **is called · refers to** 가 보이면 그 앞뒤를 건주어 **짧은 쪽에 동그라미**를 친다. **그 짧은 쪽이 글의 주인**이고, 나머지 문장은 전부 그 하나를 설명하러 온다는 것을 안다.

들어가기 미니 과제 — 짧은 쪽에 동그라미 치기

다음은 어느 글의 첫 문장이다. 아직 전부 읽지 말고, 이름을 붙이는 자리만 찾아보자. [2018년 9월 고1 학평]

Fast fashion **refers to** trendy clothes designed, created, and sold to consumers as quickly as possible at extremely low prices. (패스트 패션은 되도록 빨리 아주 낮은 값에 디자인되고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팔리는 유행 옷을 가리킨다.)

Q1. refers to 앞에는 몇 낱말이 있고, 뒤에는 몇 낱말이 있는가?

Q2. 둘 가운데 이름은 어느 쪽인가? 그리고 글쓴이는 왜 굳이 이름을 붙였을까?

Q3. 이 뒤에 이어질 글은 무엇에 대해 말할 것 같은가?

포인트 앞은 **Fast fashion** 두 낱말, 뒤는 **trendy clothes designed, created, and sold to consumers as quickly as possible at extremely low prices** 열여섯 낱말이다. 이름은 짧은 쪽이다. 열여섯 낱말짜리 뜻을 문장마다 되풀이할 수는 없으니, 글쓴이는 첫 문장에서 두 낱말짜리 이름을 만들어 두고 그다음부터 그것만 부른다. 그러니 이 뒤에 오는 글은 **Fast fashion**에 대한 것이다. 아직 한 문장밖에 안 읽었는데도 우리는 이미 안다 — 이 글이 겨누는 하나는 **‘패스트 패션’**이고, 남은 문장들은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하러 온다. (실제로 둘째 문장이 곧바로 그것을 말한다 — **but they come with a serious price.**)

핵심 개념**글쓴이는 왜 이름을 붙이는가**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말하려는 것에 이름을 주는 것이다.

이름이 없으면 그것을 계속 길게 풀어 써야 한다. 「되도록 빨리 아주 낮은 값에 디자인되고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팔리는 유행 옷」이라고 문장마다 되풀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글쓴이는 첫 문장에서 이름을 준다 — **Fast fashion.** 그다음부터는 그 두 낱말이 그 긴 뜻을 대신한다.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 말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니 그 이름이 곧 화제이고, 나머지 문장은 전부 그 하나를 설명하러 온다.

이름을 붙이는 표지 넷

핵심 개념 (이어서)

표지	어떻게 읽나	이 장의 어디에
A refers to B	A 는 B 를 가리킨다	들어가기 · Fast fashion refers to trendy clothes
A is called B	A 에 B 라는 이름을 준다	예제 · 훈련 A-2 · our fruits are called our results
A is referred to as B	A 를 B 라고 부른다	훈련 A-1 · 훈련 A-3 · is often referred to as emotional granularity
A is known as B	A 는 B 로 알려져 있다	이 장 일곱 편에는 나오지 않는다

넷 다 하는 일은 같다 — 긴 것에 짧은 이름을 준다.

표지가 관계대명사에 얹혀 오기도 한다 — **a global brain drain, which refers to the situation in which countries lose their best educated workers.** 끝은 달라도 하는 일은 그대로다. 이 문장은 9장에서 다시 만난다.

이름은 표지의 앞에도 오고 뒤에도 온다

여기서 학생이 가장 많이 헛짚는다. 「표지 앞이 이름」이라는 규칙은 없다.

편	이름(짧은 쪽)	뜻(긴 쪽)	이름이 표지의
들어가기	Fast fashion (2날말)	유행 옷 ~ 아주 낮은 값에 (16날말)	앞
훈련 A-1	The Zeigarnik effect (3날말)	잠재의식의 경향 ~ 끝날 때까지 (20날말)	앞
훈련 A-2	"virtual water" (2날말)	우리 음식과 공산품 속에 박혀 있는 물 (11날말)	뒤
훈련 A-3	emotional granularity (2날말)	감정을 정확히 알아보고 이름 붙이는 능력 (8날말)	뒤

넷 중 둘씩 같린다. 그러니 앞뒤로 정하면 절반을 틀린다.

표지를 찾는다 → 앞뒤 낱말 수를 센다 → 짧은 쪽이 이름, 긴 쪽이 뜻

어휘 주석 : refer to ~를 가리키다 · be called ~라고 불리다 · be known as ~로 알려져 있다 · trendy 유행하는 · garment 의류 · embedded 박혀 있는

표지 없이 이름을 주기도 한다 — 대시 하나

표지 넷이 없는데도 이름을 주는 자리가 있다. 대시(—)나 콜론(:)이 그 일을 대신한다.

Awards are supposed to be rewards—reactions to positive actions, honors for doing something well!

대시 뒤가 앞엿말을 다시 말해 준다. 훈련 B(대시)와 훈련 C(표지 없이 첫 문장)가 그런 편이고, 그 편에는 표지 넷 가운데 하나만 나가 버젓이 있는데 그것은 이름을 주지 않는다([6] 실수 2).

이름은 어느 자리에 오나

대개 첫 문장이다. 글쓰이는 말할 것을 정하고 나서 글을 쓰기 때문이다. 이 장 일곱 편을 세어 보면 이렇다.

핵심 개념 (이어서)

이름이 얹은 문장	편수
첫 문장(주어진 글의 첫 문장 포함)	다섯(들어가기 · A-1 · A-2 · A-3 · C)
셋째 문장	하나(B)
넷째 문장	하나(예제)

첫 문장이 아닐 때는 그때까지 말한 것을 **한 낱말로 묶는** 것이다.

첫 문장에 오면 → 이제부터 이것을 말하겠다 (선언)
가운데에 오면 → 지금까지 말한 것이 이것이다 (묶기)

둘 다 그 낱말이 주인이라는 점은 같다. 예제가 뒤엎것의 표본이다 — 나무와 열매를 먼저 그려 놓고 넷째 문장에서 **our results** 라는 이름을 준다.

이 책의 1부에서 이름이 하는 일

1부는 「글은 하나만 말한다」 세 챕터다. 이름 붙이기가 그 첫째다.

챕터	무엇으로 하나를 세우나	학생이 할 일
CH01 이름 붙이기	이름과 뜻을 다 준다	짧은 쪽을 따라간다
CH02 낱말 따옴표	이름만 주고 뜻은 감춘다	부호를 먼저 매긴다
CH03 빗대기	딴것에 빗대어 말한다	빗대어진 쪽으로 옮긴다

표시가 열어질수록 학생이 할 일이 는다. 이 챕터가 가장 대놓고 알려 주는 자리다. 그리고 훈련 A-2 는 이름에 따옴표까지 씌운 편이라 CH02 의 연습이 된다.

지문 들여다보기 — 이름이 넷째 문장에 오는 글 [2016년 11월 고1 학평, 정답률 90%]

앞에서 배운 손동작을 실제 지문에서 써 보자. 표지를 찾고, 앞뒤 가운데 짧은 쪽에 동그라미를 친다.

① Imagine a tree. ② Let's suppose this tree represents the tree of life. ③ On this tree there are fruits.
④ In life, our fruits **are called** our results. ⑤ So we look at the fruits (our results) and we don't like them; there aren't enough of them, they're too small, or they don't taste good. ⑥ So what do we tend to do? ⑦ Most of us put even more attention and focus on the fruits, our results. ⑧ But what is it that actually creates those particular fruits? ⑨ It's the seeds and the roots that create those fruits. ⑩ It's what's under the ground that creates what's above the ground. ⑪ It's what's invisible that creates what's visible. ⑫ So what does that mean? ⑬ It means that if you want to change the fruits, you will first have to change the roots. ⑭ If you want to change the visible, you must first change the invisible.

① 이름이 어디 붙었나

④의 **our fruits are called our results** 다. 첫 문장이 아니다. ①②③이 먼저 나무 한 그루를 그려 놓고, 넷째 문장에서 그 나무의 열매에 이름을 준다.

② 이 편에서는 둘 다 짧다

our fruits(2낱말)와 **our results**(2낱말) — 길이로 갈리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르나. 뒤엣것이 이름이다. 까닭은 ①②가 알려 준다 — **Imagine a tree · this tree represents the tree of life** 로 나무는 빌려 온 그림이라고 미리 못 박아 두었다. 빌려 온 쪽이 뜻일 수 없다.

이름은 '진짜로 말하려는 것'이고, 열매는 그것을 보여 주려고 빌려 온 것이다. 그래서 이 편은 3장(빛대기)과 한 몸이다. 이름 붙이기가 빛대기를 못 박는 자리로 쓰였다.

③ 나머지 문장이 그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나

①②③ 그림을 세운다	나무 = 생명의 나무, 거기 열매가 있다
④ 이름을 준다	열매 = 우리의 결과 ← 여기가 이 장의 자리
⑤⑦ 우리가 하는 일	열매가 마음에 안 든다 → 열매에 더 매달린다
⑧ 묻는다	그런데 그 열매를 실제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⑨⑩⑪ 답한다	씨앗과 뿌리 · 땅 아래 · 보이지 않는 것
⑬⑭ 그래서	열매를 바꾸려면 뿌리를 바꿔라 · 보이는 것을 바꾸려면 안 보이는 것을

④가 없으면 이 글은 나무 이야기다. ④ 하나가 열매를 「우리의 결과」로 바꿔 놓았고, 그때부터 뿌리는 뿌리가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근본이 된다.

④ 이름이 붙은 뒤에 짝이 하나 더 생긴다

⑨⑩⑪이 같은 말을 세 번 한다. 낱말만 갈아 끼운다.

문장	만드는 쪽	만들어지는 쪽
⑨	the seeds and the roots	those fruits
⑩	what's under the ground	what's above the ground
⑪	what's invisible	what's visible

지문 들여다보기 — 이름이 넷째 문장에 오는 글 [2016년 11월 고1 학평, 정답률 90%] (이어서)

세 줄이 같은 짝이다. ㉔가 「열매 = 결과」를 못 박아 두었으므로 오른쪽 칸은 전부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이고, 왼쪽 칸은 전부 그것을 만드는 근본이다.

㉔ 그래서 답은

이름은 **our results**(드러나는 결과), 그 이름에 대해 글이 말한 것은 그것을 바꾸려면 먼저 뿌리를 바꿔야 한다는 것. → ㉔ 드러나는 결과를 바꾸려면 우선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한다.

㉔ 함정에 걸리는 이유

㉑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change** 가 ㉓㉔에 네 번 있다. 그러나 이 글이 바꾸라는 것은 뿌리이지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인식을 말한 축이 아니다. → [초점 어긋남]

㉒ 어려운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전도 어려운 환경도 지문에 없다. 이 글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look at the fruits · put even more attention and focus · change the roots** 뿐이다. → [판소재]

㉓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꿈과 목표가 필요하다 꿈도 목표도 지문에 없다. **life** 는 ㉑㉒에 있으나 그것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빌려 온 말이다. → [판소재]

㉔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visible**(㉑㉒)이 지문에 있다. 그러나 그 **visible** 은 내 결과이지 남의 겉모습이 아니고, 글은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라 바꾸라고 한다. → [초점 어긋남]

포인트 오답 넷 가운데 둘(㉑㉒)이 지문에 있는 낱말을 쓴다. 그러나 낱말이 겹친다고 답이 아니다. 가르는 것은 하나다 — 이름 붙은 낱말(**our results**)에 대해 글이 무엇을 말했는가.

읽기 루틴 (이 챕터의 기본 동작)

STEP 1 지문을 훑 **is called · refers to · referred to** 를 찾는다. 첫 문장이 아닐 수도 있다 — 이 장 일곱 편 가운데 으며 **as · known as** 둘은 셋째·넷째 문장에 있다.

STEP 2 그 표지의 앞뒤 낱말 수를 센다. 짧은 쪽에 동그라미 를 친다. 그것이 이름이다.

STEP 3 나머지 문장을 읽으며 그 이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만 모은다.

STEP 4 선택지에서 그 이름과 그 말 을 둘 다 담은 것을 고른다.

낱말이 겹치는 것만으로 고르지 않는다. 겹침은 오답도 쓴다.

표지가 없다고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시(—)나 콜론(:)이 대신하기도 한다(훈련 B).

주의 이 챕터의 두 가지 실수

주의 실수 1 — 이름 붙은 낱말만 보고 답 고르기. 들어가기 편에서 **fast fashion** 이 들어간 선택지가 **둘**이었다(①과 ②). 이름만으로는 안 갈린다. 그 이름에 대해 글이 무엇을 말했는가까지 봐야 한다. 거기서는 「값을 치른다」였고, ②는 그 반대 (**positive impacts**)를 담았다.

주의 실수 2 — 꼴이 같으면 이름이라고 여기기. **is called** 뒤에 **for** 가 붙으면 이름을 주는 말이 아니다.

꼴	뜻	이름을 주나
A is called B	A 를 B 라고 부른다	준다
A is called for	A 가 요구된다	안 준다
A refers to B (가리키다)	A 가 B 를 향한다	안 줄 때가 있다

훈련 B 의 첫 문장이 **it kills the impact of real praise when it is called for** 다. 표지가 버젓이 있는데 뒤에 이름이 없다. 그 편에서 이름을 주는 것은 셋째 문장의 대시다.

refer to 도 헛돌 때가 있다. 훈련 C 의 주어진 글이 그렇다 — **they refer to the real world ... they also refer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는 「가리키다」이지 이름을 주는 말이 아니다. 앞뒤 낱말 수를 세면 짧은 쪽이 대명사 **they** 라 이름이 아닌 것에 동그라미를 치게 된다. 그 편의 이름 둘(**content · relationship dimensions**)은 표지 없이 첫 문장에 있다.

표지를 찾았으면 뒤에 이름이 실제로 놓였는지 확인한다.

단계 훈련**A. 이름 찾기 (3세트) — 표지에 밑줄을 긋고, 이름과 그 뜻을 갈라 적으시오****A-1.** [2021년 9월 고1 학평, 정답률 70%]

표지의 앞뒤 낱말 수를 세고, 어느 쪽이 이름인지 적으시오.

The Zeigarnik effect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tendency of the subconscious mind to remind you of a task that is incomplete until that task is complete.

A-2. [2016년 3월 고1 학평, 정답률 67%]

이 편은 이름에 **다음표까지** 씌웠다. 왜 그랬을지 한 줄로 적으시오.

The water that is embedded in our food and manufactured products is called "virtual water."

A-3. [2022년 3월 고1 학평, 정답률 65%]

이름 붙는 쪽이 문장의 거의 전부다. 이 글의 주인은 어느 쪽인가?

Our ability to accurately recognize and label emotions is often referred to as emotional granularity.

B. 표지가 있는데 이름이 없다 (1세트) [2019년 6월 고1 학평, 정답률 52%]

요지 문항이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Certainly praise is critical to a child's sense of self-esteem, but when given too often for too little, it kills the impact of real praise when it is called for. ② Everyone needs to know they are valued and appreciated, and praise is one way of expressing such feelings—but only after something praiseworthy has been accomplished. ③ Awards are supposed to be rewards—reactions to positive actions, honors for doing something well! ④ The ever-present danger in handing out such honors too lightly is that children may come to depend on them and do only those things that they know will result in prizes. ⑤ If they are not sure they can do well enough to earn merit badges, or if gifts are not guaranteed, they may avoid certain activities.

① 올바른 습관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 ② 칭찬은 아이의 감성 발달에 필수적이다. ③ 아이에게 칭찬을 남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④ 물질적 보상은 학습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아이에게 감정 표현의 기회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단계 **훈련** (이어서)

힌트 — 첫 문장에 **is called** 가 있다. 그런데 뒤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 이 글은 이름을 안 주는 글인가? 셋째 문장의 대시(—)를 보라. 대시가 **rewards** 에 뜻을 달아 준다. 그 뜻이 이 글의 요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

C. 「한 걸음 더」 — 이름이 들이면 차례까지 정해진다 (1세트) [2018년 6월 고1 학평, 정답률 39%]

순서 문항이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주어진 글] Interpersonal messages combine content and relationship dimensions. That is, they refer to the real world, to something external to both speaker and listener; at the same time they also refer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A) You can appreciate this most clearly if you visualize the same command being made by the trainee to the supervisor. It appears awkward and out of place, because it violates the normal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 and trainee.

(B) It also contains a relationship message that says something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supervisor and the trainee. Even the use of the simple command shows there is a status difference that allows the supervisor to command the trainee.

(C) For example, a supervisor may say to a trainee, "See me after the meeting." This simple message has a content message that tells the trainee to see the supervisor after the meeting.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힌트 — 주어진 글이 이름을 **둘** 준다. 그 둘을 찾아 주어진 차례대로 적어 보라. 그다음 (A)(B)(C)에서 그 이름들이 어느 덩어리에 있는지 표시하라. 이름을 준 차례가 덩어리의 차례다. 하나 더 — 사람을 **a supervisor** 로 부른 덩어리와 **the supervisor** 로 부른 덩어리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여야 하는가.

챕터 요약

한 문장	글쓴이가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글의 주인이다
표지 넷	is called · refers to · referred to as · known as
손동작	표지를 찾는다 → 앞뒤 낱말 수를 센다 → 짧은 쪽에 동그라미 → 그것에 대해 뭐라 했는지만 모은다
표지 없이도	대시(—)·콜론(:)이 이름을 준다
함정 1	낱말이 겹친다고 답이 아니다. 오답도 지문 낱말을 쓴다
함정 2	is called for 는 「요구되다」, refer to 는 「가리키다」 — 표지 뒤에 이름이 놓였는지 본다
다음	CH02 는 따옴표로, CH03 은 빗대기로 같은 일을 한다

이 챕터가 이 책 전체의 문이다. 앞으로 열여덟 챕터에서 우리는 계속 같은 것을 찾는다 — 글이 겨누는 하나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이름 붙이기는 그것을 가장 대놓고 하는 방식일 뿐이다. CH02 에서는 글쓴이가 이름만 주고 뜻을 감춘다. 그때는 우리가 뜻을 만들어야 한다.

챕터 시작면

1부 글은 하나만 말한다 · CHAPTER 02 · 담당 표지 “ ” (낱말 하나에 씌운 큰따옴표)

따옴표가 씌워진 그 낱말이, 글의 주인이다

Before — 지문에 따옴표가 나오면 그냥 지나쳤다. 따옴표 안의 낱말을 **사전에서 배운 뜻 그대로** 읽었고, 그러면 뒤 문장이 걸돌았다.

After — 글쓴이가 **낱말 하나에 따옴표를 씌우는 자리**를 안다. 그 낱말에 동그라미를 치고, **바로 뒤 한두 문장에서 글이 그 낱말을 편드는지 나무라는지**를 먼저 정한다. 1장에서는 이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따라가기 전에 한 걸음이 더 있다**.

들어가기 미니 과제 — 따옴표 안의 낱말 하나

다음은 어느 글의 **처음 세 문장**이다. 아직 전부 읽지 말고, **따옴표만** 찾아보자. [2020년 6월 고1 학평 23번]

A goal-oriented mind-set can create a “yo-yo” effect. Many runners work hard for months, but as soon as they cross the finish line, they stop training. The race is no longer there to motivate them. (목표 지향적 사고방식은 “요요” 효과를 낼 수 있다. 많은 달리기 선수가 몇 달 동안 열심히 애쓰지만, 결승선을 넘자마자 훈련을 멈춘다. 그 경주는 더 이상 그들을 북돋우려 거기 있지 않다.)

Q1. 따옴표가 씌워진 것은 **문장 하나**인가, **낱말 하나**인가? 무엇인가?

Q2. 요요는 무엇을 하는 물건인가? **한 가지만** 적어 보자.

Q3. 이 글은 **요요 이야기**일까, **목표 이야기**일까?

포인트 씌워진 것은 “yo-yo” **낱말 하나**다. 요요는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온다**. 글쓴이가 빌려 오려는 것은 그 하나다. 그래서 바로 뒤 두 문장이 그것을 그대로 그린다 — 몇 달을 애써 올라가고(**work hard for months**), 결승선을 넘자 도로 내려온다(**they stop training**). 그러니 이 글은 요요 이야기가 아니다. **목표만 보고 달리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다. **따옴표는 ‘이 낱말을 곧이곧대로 읽지 말라’는 표시다**.

핵심 개념

글쓰이는 왜 낱말 하나에 따옴표를 씌우는가

1장에서 글쓰이는 이름을 주면서 뜻까지 붙여 주었다 — **Fast fashion refers to trendy clothes ~**. 그런데 뜻을 안 붙이고 따옴표만 씌우고 지나가는 자리가 있다.

따옴표는 그 낱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이 낱말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 그리고 대개 「이 낱말을 곧이곧대로 읽지 말라」.

그러면 뜻은 어디에 있나. 글 안에 흩어져 있다. “yo-yo” 가 무슨 뜻인지 글쓰이는 풀어 주지 않았다. 대신 뒤 두 문장이 그것을 그려 보였다. 흩어진 것을 모으는 것이 이 장의 일이다.

실측 — 고1 기출 740편

낱말 따옴표가 있는 편	60편(8.1%)
그중 대의파악	20편
앞 장(이름 붙이기, 34편)과 견주면	거의 두 배 흔하다

씩워지는 것은 낱말 하나다

문장을 통째로 감싼 큰따옴표는 이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말을 옮긴 것이다.

꼴	보기	무엇인가
낱말 하나	a “yo-yo” effect · the “mobile health” revolution	이 장의 자리
문장 하나	“Lisa, would you like to have pasta and meatballs ~?”	사람이 한 말 — 자리가 아니다

한 편에 둘이 함께 오기도 한다(2016년 3월 편이 그렇다. 훈련 A-3 에서 만난다). 그때도 가르는 법은 하나다 — 감싼 것이 낱말인가, 문장인가.

따옴표를 씌우는 까닭 셋

무엇	어떻게 읽나	보기
뜯어 보라	낱말을 쪼개 본디 뜻을 살려 읽는다	The often-used phrase “pay attention” — pay(값을 치르다)
남의 말 · 통 념	남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표시. 글이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being in one’s “comfort zone”
비유	실물이 아니라 그것이 하는 일 하나를 빌려 온다	a “yo-yo” effect · the “host” of this movie

부호를 먼저 매긴다

따옴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글이 그 낱말을 편드는지 나무라는지 알 수 없다.

핵심 개념 (이어서)

- 글이 그 낱말 편이다 “mobile health” → improvements
- 글이 그 낱말을 나무란다 “comfort zone” → That is not exactly true.
“yo-yo” → 결승선을 넘자 훈련을 멈춘다
- 중립 낱말을 뜯어 보거나 비유로 옮기라는 뜻 “pay attention” · “host”

비유라고 다 중립은 아니다. “host” 는 비유이면서 중립이고, “yo-yo” 는 비유이면서 ㉠다 — 빌려 온 그림이 나쁜 것이면 부호도 따라 나쁘다.

부호는 대개 따옴표 바로 뒤 한두 문장에서 정해진다. 다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2016년 3월 편(“hungry”)은 그 문장 안에서 안 정해지고, 뒤에 오는 지시(ask them to wait)까지 가야 정해진다. 몇 문장 뒤인지는 편마다 다르다.

어휘 주석 : so-called 이른바 · phrase 표현 · effect 효과 · zone 구역 · comfort 편안함 · goal-oriented 목표 지향적인

이 책의 1부에서 따옴표가 하는 일

1부는 「글은 하나만 말한다」 세 챕터다. 셋 다 글 전체가 겨누는 하나를 세운다. 방식만 다르다.

챕터	무엇으로 하나를 세우나	학생이 할 일
CH01 이름 붙이기	한 낱말에 이름을 준다 — is called · refers to	그 이름을 따라간다
CH02 낱말 따옴표	낱말 하나에 따옴표를 씌운다 — “ ”	부호를 먼저 매긴다
CH03 빗대기	다른 것에 빗댄다 — like · analogy	빗대어진 쪽으로 옮긴다

표시가 갈수록 벌어지고, 학생이 할 일은 갈수록 는다. 1장은 이름과 뜻을 다 주었고, 2장은 이름만 주고 뜻을 감췄고, 3장은 이름조차 안 준다.

지문 들여다보기 — 첫 문장이 따옴표를 씌운 글 [2014년 11월 고1 학평, 정답률 81%]

앞에서 배운 것을 실제 지문에서 확인해 보자. 따옴표가 어디에 씌워졌고, 나머지 문장이 그 낱말을 어떻게 채워 주는지 따라 읽는다.

① Across the developing world today, the “mobile health” revolution — mobile phones used as tools for healthcare — is responsible for a number of improvements. ② Mobile phones are now used to connect patients to doctors, to monitor drug distribution, and to share basic health information that isn’t available locally. ③ Mobile phones are tools to send reminders about medication and appointments to patients. ④ The central problems of health sectors in poor places — clinics without enough staff, patients in remote places, too few medications or inefficient distribution of them, and misinformation about vaccines and disease prevention — will all find at least partial solutions through connectivity.

① 따옴표가 어디 씌워졌나

지문 들여다보기 — 첫 문장이 따옴표를 씌운 글 [2014년 11월 고1 학평, 정답률 81%] (이어서)

①의 **the “mobile health” revolution** 이다. 낱말 하나이고, 첫 문장이다. 그리고 이 편은 친절하다 — 바로 뒤 줄표(—)가 그 자리에서 뜻을 풀어 준다. **mobile phones used as tools for healthcare**(의료 도구로 쓰이는 휴대전화).

② 나머지 문장이 그 낱말을 어떻게 채우나

- | | |
|---------------|---|
| ① 따옴표 + 즉석 풀이 | "모바일 헬스" = 의료 도구로 쓰이는 휴대전화
→ 여러 개선(improvements)을 낳고 있다 |
| ② 무엇을 하나 | 환자를 의사와 잇고 · 약 유통을 살피고 ·
그 지역에 없는 기초 보건 정보를 나눈다 |
| ③ 하나 더 | 약과 진료 약속을 알리는 도구이기도 하다 |
| ④ 가난한 곳의 문제들 | 인력 모자란 진료소 · 오지의 환자 · 너무 적거나
비효율적으로 유통되는 약 · 백신과 예방에 대한 잘못된 정보 |
| 그리고 결론 | → 그 모두가 연결을 통해 적어도 일부 해법을 찾을 것이다 |

네 문장이 모두 **“mobile health”** 하나를 말한다. 벗어나는 문장이 하나도 없다.

③ 부호를 매긴다

어디	무엇이 정하나	부호
① 첫 문장의 끝	is responsible for a number of improvements	⊕
④ 마지막 문장	will all find at least partial solutions	⊕

글은 이 낱말 편이다.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못 박혀 있다 — 보건(healthcare)이다.

④ 그래서 답은

따옴표 낱말은 **“mobile health”**, 그 낱말에 대해 글이 말한 것은 좋아진다는 것. → ② **benefits of mobile phones in healthcare**

⑤ 함정에 걸리는 이유

- ① dangers of the mobile phone revolution **mobile phone revolution** 이 ①에 그대로 있다. 그러나 ①의 **improvements** 와 ④의 **find ... solutions** 가 부호를 ⊕로 못 박았다. → [방향 반대]
- ③ limitations of mobile healthcare service **at least partial solutions**(일부의 해법)에 한계가 담겨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문장의 한 마디이고, 글이 내내 든 것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축이 한계가 아니라 이점이다. → [초점 어긋남]
- ④ ways to improve medical device connectivity **connectivity** 가 ④에 있다. 그러나 글이 재는 것은 연결이 무엇을 해 주는가까지 연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하나가 아니다. → [초점 어긋남]
- ⑤ importance of distributing vaccines in poor areas **distribution · vaccines · poor** 가 다 지문에 있다. 그러나 ④의 목록은 그 둘을 따로 들고, ⑤는 목록의 한 항목만 집어 제목으로 키웠다. 글이 든 개선은 진료·유통·정보·예방에 두루 걸친다. → [초점 어긋남]

포인트 오답 넷이 전부 지문에 있는 낱말을 쓴다. ①은 **revolution**, ③은 **partial**, ④는 **connectivity**, ⑤는 **vaccines** 와 **distribution**. 그러니 낱말이 겹친다고 답이 아니다. 가르는 것은 둘이다 — 따옴표 낱말에 매긴 부호와, 그 낱말에 대해 글이 무엇을 말했는가.

읽기 루틴 (이 챕터의 기본 동작)

STEP 1 지문을 훑으며 큰따옴표 를 찾는다. 감싼 것이 낱말 하나 인지 본다.

STEP 2 그 낱말에 동그라미 를 친다. 대개 그것이 이 글의 주인이다.

STEP 3 바로 뒤 한두 문장 에서 * · * · 중립 을 매긴다. ← 1장에 없던 걸음

STEP 4 중립 낱말을 뜯어 (pay → 값을 비유로 (요요 → 도로 내려옴). 그런 그 낱말과 그 부호를 을 고 이면 보거나 치르다) 옮긴다 다음 선택지에서 둘 다 맞춘 것 른다.

문장을 통째로 감싼 따옴표는 STEP 1에서 걸러 낸다 — 그것은 사람이 한 말이다. 다만 한 편에 둘이 다 나오는 편도 있으니 (A-3), 따옴표를 보면 감싼 길이를 먼저 본다.

STEP 2에 조건이 하나 붙는다 — 따옴표 낱말이 늘 글의 주인은 아니다. A-3(2016년 3월 “hungry”)에서 그 낱말은 예 하나 안에 들어 있다. 글의 주인은 첫 문장의 Give children options 쪽이고, “hungry”는 그 지시가 부딪히는 자리일 뿐이다(그래서 정답이 Food Independence 다). 가르는 물음은 「그 낱말이 예 안에 있는가」다. For example 이 붙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다(A-3). 다만 표지 없이 예가 들어오기도 한다 — 훈련 C의 Have you ever seen the classic movie Amadeus? 뒤가 그렇다. 그럴 때는 하나만 더 물으면 된다 — 이 낱말을 지우면 글의 주장이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으면 거울이다. 예 안에 있으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럴 때는 낱말이 아니라 글이 그 낱말을 어떻게 다루라고 했는가(ask them to wait)를 답으로 쓴다.

주의 이 챕터의 두 가지 실수

주의 실수 1 — 따옴표 낱말을 사전 뜻으로 읽기. “pay attention”을 「주의를 기울이다」로 읽으면 그 글이 안 열린다. 글쓴이가 따옴표를 씌운 까닭은 pay(값을 치르다)라는 낱말을 보라는 것이고, 그래서 뒤에 budget(예산) · allocate(배정하다) · go beyond(넘어서다)가 따라온다. 따옴표 낱말이 뒤 문장과 안 이어지면, 낱말을 잘못 읽은 것이다.

주의 실수 2 — 따옴표가 있으니 글이 그 낱말 편이라고 여기기. “comfort zone”은 글이 부정하는 통념의 이름이다. 바로 다음 문장이 That is not exactly true. 다. 따옴표는 강조도 되고 의심도 된다. 어느 쪽인지는 따옴표가 알려 주지 않는다. 뒤 문장이 알려 준다. 그래서 STEP 3이 있다.

단계 훈련**A. 따옴표 낱말 찾고 부호 매기기 (3세트)**

따옴표 낱말에 동그라미를 치고, * · * · 중립 가운데 하나를 매기시오. 그리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매겼는지 한 줄로 적으시오.

단계 **훈련** (이어서)**A-1.** [2017년 11월 고1 학평 39번]

The often-used phrase “pay attention” is insightful: you dispose of a limited budget of attention that you can allocate to activities, and if you try to go beyond your budget, you will fail.

A-2. [2021년 9월 고1 학평 42번]

Most people assume that conflict is bad and that being in one’s “comfort zone” is good. That is not exactly true.

A-3. [2016년 3월 고1 학평 31번]

For example, include them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what you are thinking of making for dinner—“Lisa, would you like to have pasta and meatballs, or chicken and a baked potato?” When discussing how much they should eat during dinner, serve them a reasonable amount; if they claim they are still “hungry” after they are through, ask them to wait five to ten minutes, and if they continue to feel hunger, then they can have a second plate of food.

A-3 은 따옴표가 둘이다. 하나는 **문장 전체**를 감쌌고 하나는 **낱말 하나**를 감쌌다. 이 장의 자리는 어느 쪽인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가?

B. 따옴표 낱말에서 벗어난 문장 찾기 (1세트) [2021년 11월 고1 학평 7번, 정답률 66%]

따옴표가 씌워지면 나머지는 전부 그 하나를 말한다. **하나만 그러지 않는다.** “filter-bubble” 에 매긴 부호를 먼저 정하고, 부호가 뒤집힌 문장을 고르시오.

Internet activist Eli Pariser noticed how online search algorithms encourage our human tendency to grab hold of everything that confirms the beliefs we already hold, while quietly ignoring information that doesn’t match those beliefs. ㉠ We set up a so-called “filter-bubble” around ourselves, where we are constantly exposed only to that material that we agree with. ㉡ We are never challenged, never giving ourselves the opportunity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diversity and difference. ㉢ Creating a difference that others don’t have is a way to succeed in your field, leading to the creation of innovations. ㉣ In the best case, we become naive and sheltered, and in the worst, we become radicalized with extreme views, unable to imagine life outside our particular bubble. ㉤ The results are disastrous: intellectual isolation and the real distortion that comes with believing that the little world we create for ourselves is the world.

단계 **훈련** (이어서)

* naive: 세상을 모르는 · ** radicalize: 과격하게 만들다 · *** distortion: 왜곡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힌트 — difference 라는 낱말이 두 문장에 나온다. 같은 낱말이 양쪽 편에 다 있을 수 있다. 낱말을 세지 말고 부호를 매겨 보라.

C. 「한 걸음 더」 — 빈칸 (1세트) [2024년 9월 고1 학평 35번, 정답률 34%]

깊은 물음에서는 한 걸음이 더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따옴표 낱말의 뜻을 모으기만 하면 됐다. 빈칸에서는 그 낱말이 어느 대목을 열려고 놓였는지까지 봐야 한다.

You hear again and again that some of the greatest composers were misunderstood in their own day. Not everyone could understand the compositions of Beethoven, Brahms, or Stravinsky in their day. The reason for this initial lack of acceptance is unfamiliarity. The musical forms, or ideas expressed within them, were completely new. And yet, this is exactly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them so great. Effective composers have their own ideas. Have you ever seen the classic movie Amadeus? The composer Antonio Salieri is the “host” of this movie; he’s depicted as one of the most famous non-great composers — he lived at the time of Mozart and was completely overshadowed by him. Now, Salieri wasn’t a bad composer; in fact, he was a very good one. But he wasn’t one of the world’s great composers because his work wasn’t _____. What he wrote sounded just like what everyone else was composing at the time.

① simple ② original ③ familiar ④ conventional ⑤ understandable

힌트 — “host” 는 살리에리를 무대에 올리려고 놓인 낱말이다. 그러니 빈칸의 답은 살리에리에게 없던 것이고, 그것은 앞에서 이미 이름이 붙어 있다. 그리고 빈칸 앞의 **wasn’t** 를 놓치지 마라 — 부정 하나가 답을 뒤집는다.

챕터 요약

한 문장 따옴표가 씌워진 낱말이 화제이고, 따옴표는 「곧이곧대로 읽지 말라」는 표시다

표지 “ ” — 낱말 하나를 감싼 큰따옴표(문장을 감싼 것은 사람의 말)

손동작 낱말에 동그라미 → 뒤 한두 문장에서 부호를 매긴다 → 중립이면 뜯어 보거나 비유로 옮긴다

함정 따옴표가 있다고 글이 그 낱말 편인 것이 아니다

다음 CH03 은 따옴표도 이름도 없이 빗대기만 오는 자리다

이 장 일곱 편의 부호

편	따옴표 낱말	부호	무엇이 정했나
예제	“mobile health”	•	improvements(첫 문장 끝)
들여가기	“yo-yo”	•	되돌아옴을 그린 뒤 두 문장
A-1	“pay attention”	중립	is insightful — 뜯어 보라
A-2	“comfort zone”	•	That is not exactly true.(바로 다음 문장)
A-3	“hungry”	중립	ask them to wait — 곧이곧대로 받지 말라
B	“filter-bubble”	•	never challenged · disastrous
C	“host”	중립	비유 — 살리에리를 무대에 올린다

같은 표지가 •도 되고 •도 된다. 그래서 이 장에는 1장에 없던 걸음이 하나 있다.

1장과 2장은 같은 일을 한다 — 글 전체가 겨누는 하나를 세우는 일. 1장은 이름을 주면서 뜻까지 붙여 주었고, 2장은 따옴표만 씌우고 뜻은 글에 흠여 놓았다. 3장에서는 표시마저 없어진다.

챕터 시작면

1부 글은 하나만 말한다 · CHAPTER 03 · 담당 표지 like · is similar to · analogy · The same applies · Likewise

빗댄 것은 버리고, 빗대어진 쪽만 남긴다

Before — 지문에 자동차나 낚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화제인 줄 알았다**. 그래서 뒤 문장이 갑자기 뇌나 광고 이야기로 바뀌면 글을 놓쳤다.

After — 글쓴이가 다른 것을 끌어와 겹쳐 놓는 자리를 안다. 표를 두 칸으로 긋고 **왼쪽에 빗대는 것, 오른쪽에 빗대어지는 것**을 적는다. **주인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오른쪽을 보여 주려고 잠깐 빌려 온 것임을 안다.

들어가기 미니 과제 — 나무 이야기인가, 사람 이야기인가

다음은 어느 글의 **처음 세 문장**이다. 아직 전부 읽지 말고,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는지**만 보자. [2012년 6월 고1 학평 50번]

I'm told there is a tree in Indonesia **called** the **"upas."** This tree is poisonous and grows so full and thick that it kills all plants growing beneath it. I'm sorry to say that I know some people **like that**. (인도네시아에 **"우파스"**라 불리는 나무가 있다고 나는 들었다. 이 나무는 독이 있고 워낙 가득 두껍게 자라 그 아래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을 죽인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런** 사람들을 몇 안다고 말해야겠다.)

Q1. 앞 두 문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Q2. 셋째 문장에서 이야기가 **무엇으로 옮겨 가는가?** 그것을 알려 준 말은 무엇인가?

Q3. 그러면 이 글의 주인은 **나무**인가, **사람**인가?

포인트 앞 두 문장은 **나무** 이야기이고, 셋째 문장에서 **사람**으로 건너간다. 건너가게 한 말은 **some people like that**(그런 사람들) — **like(같은)** 하나다. 그러니 주인은 **사람**이다. 나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 주려고 빌려 온 것이다. 나무가 하는 일은 하나 — **아래 것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 빌려 오는 것도 그 하나뿐이다.

이 세 문장에 우리가 배운 것이 다 들어 있다 — **called**(1장 이름 붙이기) · **"upas."**(2장 낱말 따옴표) · **like that**(3장 빗대기). **셋 다 하는 일이 같다. 글이 겨누는 하나를 세우는 것이다.**

핵심 개념

글쓴이는 왜 다른 것에 빗대는가

말하려는 것이 **눈에 안 보일 때**. 「멀티태스킹이 왜 손해인가」는 눈에 안 보인다. 그런데 **연료 없이 달리는 자동차**는 눈에 보인다. 그래서 글쓴이는 보이는 것을 하나 끌어와 **보이지 않는 것 위에 겹쳐 놓는다**.

빗대기는 잠깐 빌려 오는 것이다. 빌려 온 것은 **하는 일 하나만** 넘겨주고 곧 사라진다. 남는 것은 **빗대어진 쪽**이다.

실측 — 고1 기출 740편

빗대기가 있는 편	34편(4.6%)
그중 대의파악	8편
1장(이름 붙이기)과 같고, 2장(따옴표 60편)보다 드물다	

빗대는 말

표지	어떻게 읽나	보기
A is like B	A 를 B 에 겹쳐 놓는다	you are like a car trying to run without fuel
A is similar to B	같은 일을 like 없이 한다	this motion is similar to what they experienced in the womb
like any other ~	A 를 그 무리 안에 넣는다	Language skills, like any other skills , ~
the analogy of ~	대놓고 「비유를 쓰겠다」고 알린다	he uses the analogy of a lifeguard ~
The same applies · Likewise	여기서 건너간다는 다리	The same applies to your work.

다섯 다 하는 일은 같다 — **딴것을 끌어와 겹친다**. 다만 **The same applies · Likewise** 는 자리가 다르다. 앞 셋은 비유를 여는 말이고, 이 둘은 비유를 **닫고 건너가는** 말이다. **건너간 쪽이 주인**이다.

표를 두 칸으로 긋는다

빗대는 것(빌려 온 것)	빗대어지는 것(주인)
자동차 · 연료 빨래	뇌 · 아침 식사 일
낚시 · 물고기 우파스나무	마케팅 · 표적 시장 자기중심적인 사람

왼쪽은 버리고 오른쪽만 남긴다. 선택지도 흔히 그렇게 갈린다 — **왼쪽 낱말이 함정에 걸리는 편이 이 장 일곱 가운데 다섯이다**(무관 두 편에서는 오답이 아니라 골라낼 문장이 그것을 쓴다). 다만 이것은 **첫 짐작**이지 규칙이 아니다. 나머지 둘(예제 · 훈련 A-2)에서는 오답이 전부 **오른쪽 언저리**에서 나왔고, 훈련 B에서는 **정답 문장도 왼쪽 낱말을 쓴다**. 표를 긋고 **「이 비유가 재려는 것」**을 적어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핵심 개념 (이어서)**빗대기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

주의 **Just as likely is the idea that ~** 는 빗대는 말이 아니다. 여기의 **just as** 는 「**똑같이 ~한**」이라는 정도 부사이고, 문장 전체는 「**~만큼 그럴듯한 것은 ~이다**」라는 도치된 비교다. **꼴만 빗대기를 닮았다**. 1장 훈련 B 에서도 표지가 버섯이 붙었는데 이름을 주지 않는 편을 보았다 — **is called for** 다. **표지를 찾는 눈이 생기면 바로 이런 자리에서 헛짚는다**. 훈련 C 에서 만난다.

어휘 주석 : analogy 비유 · apply to ~에 적용되다 · likewise 마찬가지로 · be like ~와 같다 · beneath ~ 아래 · poisonous 독이 있는

이 책의 1부에서 빗대기가 하는 일

챕터	표시	학생이 할 일
CH01 이름 붙이기	is called · refers to — 이름과 뜻을 다 준다	그 이름을 따라간다
CH02 낱말 따옴표	" " — 이름만 주고 뜻은 감춘다	부호를 먼저 매긴다
CH03 빗대기	like · analogy — 이름조차 안 준다	빗대어진 쪽으로 옮긴다

표시가 갈수록 벌어지고, 학생이 할 일은 갈수록 는다. 그러나 세 장이 하는 일은 하나다 — **글은 하나만 말한다**.

지문 들여다보기 — 첫 문장이 빗댄 글 [2015년 3월 고1 학평, 정답률 92%]

앞에서 배운 것을 실제 지문에서 확인해 보자. **무엇을 빌려 왔고, 그것이 무엇에 겹쳐지는지** 따라 읽는다.

① When you skip breakfast, you **are like** a car trying to run without fuel. ② Experts say that a nutritious breakfast is **the brain's fuel**. ③ A brain that is fully fueled concentrates better and solves problems faster. ④ Some students say that getting a few extra minutes of sleep is more important than eating a bowl of oatmeal, **but they're wrong**. ⑤ Of course, sleeping is important, but going to bed a half-hour earlier would be better than sleeping late and skipping breakfast. ⑥ For students who want to do well in school, breakfast is the most important meal of the day. ⑦ Give your brain the fuel it needs to run well. To think more clearly and faster, eat a good breakfast.

① 어디에서 빗땀나

①의 **you are like a car trying to run without fuel** 이다. 첫 문장이고, 빗대는 말은 **are like** 하나다. 그리고 이 편은 친절하다 — 바로 다음 문장이 대응을 그어 준다. **a nutritious breakfast is the brain's fuel**(영양 있는 아침이 뇌의 연료다).

② 표를 두 칸으로 굿는다

지문 들여다보기 — 첫 문장이 빗댄 글 [2015년 3월 고1 학평, 정답률 92%] (이어서)

빗대는 것	빗대어지는 것	어디
자동차	뇌	②③⑦
연료	아침 식사	②⑦
연료 없이 달림	아침을 거름	①⑥

사라지는 것은 빌려 온 「것」이고, 남는 것은 빌려 온 「말」이다. **car**(자동차)는 ①에 한 번 나오고 끝난다. 그러나 **fuel**(②③⑦) · **run**(⑦)은 끝까지 남아 오른쪽을 부르는 말로 쓰인다 — **the brain's fuel** · **Give your brain the fuel**. 오른쪽은 일곱 문장 내내 나온다.

㉓ 나머지 문장이 어느 쪽을 말하나

- | | |
|-------|--|
| ① 빗대기 | 아침을 거르면 연료 없이 달리려는 자동차 같다 |
| ② 대응 | 전문가들은 영양 있는 아침이 뇌의 연료라고 말한다 ← 여기서 건너간다 |
| ③ 풀이 | 연료를 다 채운 뇌는 더 잘 집중하고 더 빨리 문제를 푼다 |
| ④ 반론 | 몇 분 더 자는 것이 낫다는 학생이 있다 — 그러나 그들이 틀렸다 |
| ⑤ 재반론 | 잠도 중요하다. 그러나 늦잠 자고 거르니 삼십 분 일찍 자라 |
| ⑥ 결론 | 학교에서 잘하고 싶은 학생에게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이다 |
| ⑦ 명령 | 뇌에 연료를 주어라 — 좋은 아침을 먹어라 |

㉔부터 끝까지 자동차는 한 번도 안 나온다. 빌려 온 것은 제 할 일을 마치고 사라졌다.

㉔ 그래서 답은

빗대어진 쪽은 **아침 식사**이고, ⑥이 그것을 누구의 이야기인지까지 못 박는다 — **For students who want to do well in school**. → ㉔ 학생에게 있어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

㉕ 함정에 걸리는 이유

- ① 청소년에게 적당한 수면 시간 잠은 ④⑥에 나온다. 그러나 **아침을 거르는 핑계**로 나온 것이고, 적당한 수면 시간을 채는 글이 아니다. → [초점 어긋남]
- ②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음식 **brain**(②③⑦)도 **a bowl of oatmeal**(④)도 지문에 있다. 그러나 이 글이 드는 음식은 **아침 한 끼**뿐이다. 음식 일반으로 넓혔다. → [범위 과대]
- ③ 수면 부족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잠은 ④⑥에 있으나 글이 걱정하는 것은 수면 부족이 아니라 **아침을 거르는 일**이다. ⑤는 오히려 **일찍 자라**고 한다. → [초점 어긋남]
- 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바람직한 학습 태도 **do well in school**(⑥)이 지문에 있다. 그러나 글이 대는 방법은 **아침 한 끼** 하나다. 학습 태도 전반으로 넓혔다. → [범위 과대]

포인트 자동차가 화제라고 여기면 나머지 여섯 문장이 다 걸돈다. 오답 넷 가운데 자동차를 담은 것은 **하나도 없다**. 출제자도 왼쪽을 버렸다. 오답은 오른쪽 언저리(잠 · 음식 · 성적)에서 **초점을 옮기거나 범위를 넓혀** 만들어졌다.

읽기 루틴 (이 챕터의 기본 동작)

STEP 1 지문에서 **like · is similar to · analogy · The same applies · Likewise** 를 찾는다.

STEP 2 표를 두 칸으로 긋는다 — 왼쪽에 **빗대는 것** , 오른쪽에 **빗대어지는 것** .

STEP 3 글이 대응을 직접 그어 주는 을 찾아 밑줄을 긋는다 (예 **a nutritious breakfast is the** 이 그것이다).
문장 제의 **brain's fuel** 다).

STEP 4 이 비유가 재려는 것 하나 를 적는다. 그다음 선택지에서 그것을 담은 것 을 고른다.

대응을 그어 주는 문장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제와 훈련 B 에는 있고, 훈련 A-2(**like any other skills**)에는 없다 — 그 때는 되풀이되는 낱말로 오른쪽을 찾는다.

주의 이 챕터의 두 가지 실수

주의 실수 1 — 빗대는 것을 화제로 잡기. 훈련 A-1 에서 빨래가 두 문장(©©)을 차지하고, 그 두 문장이 여덟 가운데 가장 길다. 그래서 「집안일 이야기」로 읽힌다. 그러나 **The same applies to your work.** 한 줄이 빨래를 버리고 일로 건너가라는 신호다. 빗대는 것이 길어도 주인은 건너간 쪽이다.

주의 실수 2 — 비유가 재려는 것 하나를 안 정하기. 훈련 A-3 의 인명구조원 비유가 재는 것은 오직 걸리는 시간이다. 그런데 「구조원은 거친 바다에 대비해야 한다」는 문장이 끼어들면 그럴듯하게 들린다 — 비유 안의 낱말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가 재려는 것 하나를 먼저 적어 두면 그 문장이 걸린다.

단계 훈련**A. 두 칸으로 갈라 적기 (3세트)**

빗대는 것과 빗대어지는 것을 갈라 적고, 그 비유가 재려는 것을 한 줄로 적으시오.

A-1. [2015년 11월 고1 학평 31번]

While doing the laundry, just do the laundry: Listen to the sound of the water as it fills the washing machine and feel the clothes in your hand. It doesn't take up any more time than it would when done with your phone pressed to your ear. The same applies to your work.

A-2. [2015년 6월 고1 학평 30번]

Language skills, like any other skills, can be acquired only through practice. In the case of the mother tongue, the child gets sufficient scope for this practice in his daily environment.

A-3. [2014년 9월 고1 학평 27번]

Feynman explains that light always takes the path of least time from point to point, and he uses the analogy of a lifeguard racing along a beach to save a drowning swimmer.

A-2 에는 대응을 그어 주는 문장이 없다. 그럴 때는 되풀이되는 낱말을 세어 보라.

B. 빗댄 이야기에서 벗어난 문장 찾기 (1세트) [2014년 6월 고1 학평 34번, 정답률 39%]

본문 여섯 편 가운데 가장 막히는 편이다(39%). 빗댄 이야기(낱시)가 글을 거의 다 덮는다. 먼저 두 칸 표를 긋고, 그다음 어느 칸에도 안 들어가는 문장을 고르시오.

The simplest way to define the role of the media agency is to take an analogy from fishing. The media agency must help businesses advertise their products. 'Fish where the fish are' is a maxim which applies to all areas of marketing. ㉠The 'fish', in the analogy, are the target market. ㉡It is common sense for fishermen to go where the fish are, or they won't catch anything. ㉢It wouldn't be easy to understand why these media agencies should attract these fish. ㉣Likewise, companies will get nowhere marketing in media where none of their target market will see the advertisements. ㉤ Finding the best place to find the fish is the first strategic role of the media agency.

* analogy: 비유

단계 **훈련** (이어서)

힌트 — 낚시꾼은 물고기를 부르지 않는다. 물고기가 있는 데로 간다. 다섯 문장 가운데 하나만 그 방향이 반대다.

C. 「한 걸음 더」 — 빈칸 (1세트) [2020년 9월 고1 학평 31번, 정답률 28%]

깊은 물음에서는 한 걸음이 더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빗댄 것을 옮기기만 하면 됐다. 빈칸에서는 글이 그 빗대기를 어느 자리에 두는지까지 봐야 한다. 받아들이는지, 미뤄 두는지, 옆에 다른 설명을 나란히 놓는지.

We're often told that newborns and infants are comforted by rocking because this motion is similar to what they experienced in the womb, and that they must take comfort in this familiar feeling. This may be true; however, to date there are no convincing data that demonstrat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time a mother moves during pregnancy and her newborn's response to rocking. Just as likely is the idea that newborns come to associate gentle rocking with being fed. Parents understand that rocking quiets a newborn, and they very often provide gentle, repetitive movement during feeding. Since the appearance of food is a primary reinforcer, newborns may _____ because they have been conditioned through a process of associative learning.

* womb: 자궁 · ** reinforcer: 강화물

① acquire a fondness for motion ② want consistent feeding ③ dislike severe rocking ④ remember the tastes of food ⑤ form a bond with their mothers

힌트 1 — 이 글의 빗대기는 첫 문장의 **is similar to**(자궁 속 움직임 ↔ 흔들림)다. 그런데 둘째 문장이 그것을 참이라고도 거짓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빈칸이 서 있는 곳은 그 빗대기 쪽이 아니라 옆에 나란히 놓인 설명 쪽이다. **힌트 2** — **Just as likely is ~** 는 빗대는 말이 아니다. [3]에서 본 그 가짜 표지다. **힌트 3** — **associate A with B** 에서 A와 B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쪽이 강화물인지를 적어 보라.

챕터 요약

한 문장	빗대는 것과 빗대어지는 것을 갈라라. 주인은 빗대어지는 쪽이다
표지	like · analogy · The same applies · Likewise
손동작	표를 두 칸으로 긋는다 → 대응을 그어 주는 문장을 찾는다 → 비유가 재려는 것 하나 를 적는다
함정	빗대는 것이 길면 그것이 화제로 보인다. 그리고 오답이 그 쪽 낱말을 쓴다
가짜 표지	Just as likely is ~ — 빗대기가 아니라 도치된 비교
다음	2부는 포괄이 오면 세부가 온다 (G→S). 이 책에서 가장 흔한 자리다

이 장 일곱 편의 두 칸

편	빗대는 것	빗대어지는 것	왼쪽 낱말이 걸린 자리
예제	자동차 · 연료	뇌 · 아침 식사	오답 — 잠(①③) · 음식 일반(②)
들어가기	우파스나무 · 철길	자기중심적인 사람 · 돕는 사람	오답 — 우파스나무 그대로 (③⑤)
A-1	빨래	일	오답 — 전화기(⑩) · 집안일(⑨)
A-2	다른 기술	언어	오답 — 교사(①) · 동기(③)
A-3 무관	인명구조원	빛	골라낼 문장 (③ · 정답) — 구조원의 준비 상태
B 무관	낙시 · 물고기	매체 대행사 · 표적 시장	골라낼 문장 (③ · 정답) — 물고기를 낚다
C	자궁 속 움직임	흔들림	오답 — 어머니와의 유대(⑤)

무관 두 편은 자리가 다르다. 대의파악 편에서는 왼쪽 낱말이 **오답 선택지**에 걸리지만, 무관 편에서는 **골라내야 할 문장** — 곧 정답 번호 — 이 왼쪽 낱말을 쓴다. 같은 함정이 유형에 따라 다른 자리에 놓인다.

일곱 편 가운데 다섯 편에서 왼쪽 낱말이 함정에 걸린다 — 들어가기(우파스나무) · A-1(전화기 · 빨래) · A-3(구조원) · B(물고기) · C(어머니).

그러나 둘은 반대다. 예제의 오답 넷에는 자동차가 하나도 없고(잠 · 음식 · 성적), A-2 는 오답 넷 가운데 셋(교사 · 동기 · 복잡함)이 오른쪽에서 나왔고, 나머지 하나(⑩ 외국어)는 **단소재**라 양쪽 어디에도 안 든다. **그러니 「왼쪽이면 오답」으로 지우지 마라.** 훈련 B에서는 정답 문장도 왼쪽 낱말(**fish**)을 쓴다. 골라내는 것은 **「이 비유가 재려는 것」**과 맞는가다. 왼쪽·오른쪽은 그것을 찾는 표일 뿐이다.

1부를 닫으며

세 장이 같은 원칙의 세 얼굴이었다 — **글은 하나만 말한다.**

1장	이름을 붙인다	X refers to ...	이름을 따라간다
2장	따옴표를 씌운다	" "	부호를 먼저 매긴다
3장	땀것에 빗댄다	like · is similar to · analogy	빗대어진 쪽으로 옮긴다

챕터 요약 (이어서)

표시가 열어질수록 학생이 할 일이 는다. 그리고 세 장에서 표지처럼 보이거나 표지가 아닌 것을 한 번씩 만났다 — 1장 훈련 B 의 **is called for**, 2장 훈련 A-3 의 문장 따옴표, 3장의 **Just as likely**. 표지를 찾는 눈이 생기면 바로 그런 자리에서 헛짚는다. 그것이 1부의 마지막 교훈이다.